



어도비, 디즈니 이매지니어링과 협력... 테마파크 디자인 툴킷에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 도입

2026년 7월 13일, 서울 – 혁신적인 툴과 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티브, 생산성 및 고객 경험을 구현하는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 어도비가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 연구 & 개발(Walt Disney Imagineering Research & Development)과 손잡고 최신 AI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디즈니 파크와 익스피리언스(Disney Parks and Experiences)의 디자인 및 사전 제작의 시각화 파이프라인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기업이 어도비와 직접 협력해 자사 브랜드 고유의 최적화된 맞춤형 생성형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Firefly Foundry\)](#)를 통해 제공된다. 디즈니 이매지니어링들은 70년 이상 축적해 온 독보적인 예술성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왔다. 기존 이매지니어링 에셋을 기반으로 맞춤형 이번 독자 모델은 정교하게 최적화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돼 이매지니어링의 크리에이티브와 세계관 구축 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나 엘사커(Hannah Elsagr) 어도비 생성형 AI 신사업 부문 부사장은 “스토리텔링은 디즈니의 DNA이며, 최신 AI 혁신 기술로 크리에이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어도비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며, “이매지니어링 팀이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어도비의 툴과 워크플로우는 더욱 대담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최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일 라플린(Kyle Laughlin) 월트 디즈니 이매지니어링 R&D, 테크놀로지 및 엔지니어링 부문 수석부사장은 “이매지니어링은 언제나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며 “어도비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이 기대하는 감성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디즈니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테마파크 전반에서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디즈니와 같은 브랜드의 모든 캐릭터, 색상, 크리에이티브 의사 결정은 100년에 걸친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인터넷에서 무단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은 지적재산(IP)의 정확성, 브랜드 일관성 또는 생성 결과물의 출처를 보장하지 않는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는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매지니어링의 자체 디자인 카탈로그를 기반으로 구축된 맞춤형 모델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아 온 프랜차이즈의 라이선스 에셋 및 자사 에셋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개발됐으며, 각 프랜차이즈의 정교한 시각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최적화됐다. 이를 통해 이매지니어링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어도비 툴과 워크플로우 안에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 모델을 활용해 모든 매체에 걸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어도비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크리에이티브의 중심에 자리해 왔으며, 과학 및 기술 성과 부문에서 여러 차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술 혁신을 선보여 왔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를 통해 이미지니어들은 맞춤형으로 책임감 있게 구축된 AI 활용을 선도하며, 다음과 같은 초기 워크플로우를 통해 아이디어가 테마파크의 마법으로 구현되기까지의 여정을 단축해 나갈 예정이다.

- **스케치를 이미지로(sketch-to-image) 모델:** 손으로 그린 대략적인 콘셉트를 완성도 높은 2D 콘셉트 아트로 변환함으로써, 디자이너는 더 빠르게 아이디어 작업을 반복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십 가지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 **이미지니어링 에셋을 기반으로 개발된 맞춤형 이미지 모델:** 미키와 친구들(Mickey & Friends), 겨울왕국(Frozen), 모아나(Moana), 릴로&스티치(Lilo & Stitch), 카(Cars)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브랜드 가이드라인과 각 프랜차이즈의 특성에 부합하는 크리에이티브 에셋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이미지니어들은 향후 어트랙션 개발을 위한 콘셉트 및 디자인 단계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 **3D 모델링 기능:** 2D 렌더링 및 디자인 콘셉트를 정교한 3D 프로토타입으로 변환해 디자이너가 실제 착공 훨씬 전부터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재를 산정하며 엔지니어링 팀과 조율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된다.

디즈니가 테마파크, 호텔, 크루즈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파운드리는 이미지니어링이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손으로 그린 스케치와 완성도 높은 콘셉트 아트부터 정교한 3D 렌더링, 실제 시공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CAD 모델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미지니어링 팀은 디즈니 고객들이 기대해 온 크리에이티브 기준과 마법 같은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디즈니 테마파크 경험을 더욱 확장할 수 있다.

어도비에 대해

어도비는 모든 사람이 창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어도비코리아에 대한 정보 및 뉴스는 어도비코리아의 [공식 블로그](#)와 [뉴스룸](#)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즈니 이미지니어링에 대해

1952 년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이미지니어링은 세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영감을 주는, 기억에 남는 디즈니 경험을 만드는 핵심 크리에이티브 조직이다.

###